

중국대륙 시리즈 제2편

장보고의 법화원



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아하! 이것이었구나. 그가 이 산중턱에 절을 세우고,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신라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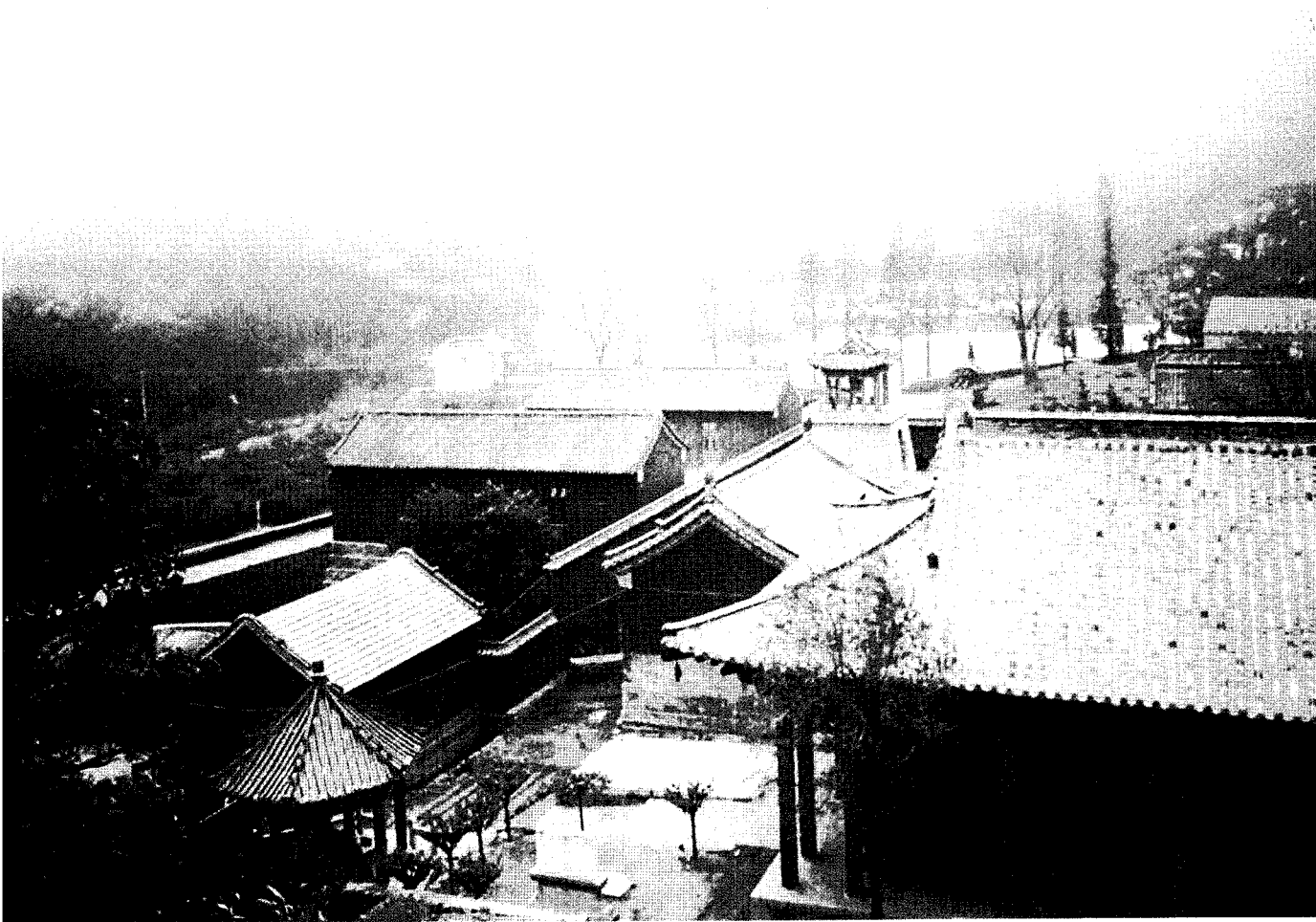


영성 시청사 앞



영성항 중국인 곡물 상점

배는 밤새 황해를 건너갔다.
 평택항에서 저녁에 탄배는 아침 8시, 나그네를 통시암 항에 내려 놓았다. 통시암시는 인구 70만의 전형적인 농촌도시.
 근래 평택시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됐다.
 항구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
 타일을 바른 2층 상가건물들이 늘어서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촌이 있으며 마을 가운데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다.
 바닷가 도시여서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건물들도 단정하다. 상가에는 쌀가게, 곡물가게들이 눈에 많이 띈다. 개중에는 간판을 아예 한글로 달아놓은 곳도 있다. 평택에서 보파리 장수를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통시암시의 농부들이 생산한 깨, 고추, 콩, 쌀등이 쌓여있다. 바로 이 곡물들이 평택으로 수입된다.
 중국은 농산물의 값이 워낙 싸다. 쌀60kg한가마니의 값은 2만9천 400원, 우리나라가 15만원 정도하니깐 그의 1/5가격이다.
 중국의 농산물 값이 워낙 싼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이다. 렌트카를 빌리려고 했으나 렌트카가 없다.
 곡물가게 주인과 흥정해서 자동차를 한대 빌리기로 했다.
 반나절에 중국돈 3백원(4만8천원)에 흥정했다. 잠시 후 곡물가게 주인집 아들이 차를 몰고 왔다. 차는 뜻밖에 대우에서 나온 프린스, 곡물가게 주인의 개인자가용이다. 성능이 어떠한고 몰랐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그차를 타고 달렸다.
 과연 땅이 넓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농부의 뒤편으로 보이는 밭은 끝이 안보



법화원 전경



법당내에 있는 장보고 영정

인다. 그야말로 지평선끝까지 밭이 펼쳐져 있다. 차를 타고 달려도 달려도 밭은 끝이 없다. 이런 땅이 한반도의 44배에 달한다. 이러니 한국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주인집 아들이 룡시양시 시청사 앞에 잠시 차를 세웠다. 시청사는 최첨단 현대식 건물에 우리나라 서울시 청사 건물보다도 더 크고, 우람하고 당당하다. 시청사 앞은 분수가 솟구치고 있는 광장이다. 산책나온 시민들이 비둘기 모이를 주면서 놀고 있다. 시청사를 중심으로 시내에는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중국의 발전상은 정말 놀랍다.

룡시양시는 산동성에서 시로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시에 들어간다.

헌데도 이 정도로 발전해있다.

그러나 요즘 중국이 큰소리를 뽕뽕 치는 것이다.

장보고의 집, 법화원.

나그네는 차를 달려 석도(石島)라는 곳으로 간다.

차는 시내 중심가를 빠져나가자마자 우회전, 산비탈을 향해 오른

법화원 법당



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 길 양옆으로는 지은지 오래된 돌집들이 늘어져있다.

단층이거나 2층인 가옥들, 돌로 지은 집이어서 이채롭다. 중국의 가옥은 예로부터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 집을 지었다. 중국은 진흙의 문화여서 탑도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 전탑을 쌓았다. 반면에 한국은 돌이 흔해서 돌로 건물이나 탑을 쌓았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이 그렇다. 일본은 나무가 흔해서 건물도 탑도 나무로 만든 것이 많았다. 지상 17층 높이의 동대사(東大寺)가 대표적인 목조건축물이다. 중국은 진흙의 문화였고, 한국은 돌의 문화, 일본은 나무의 문화였던 것이다.

현대 돌로 지은 집이라.

집의 모양새를 보면 문이나 창이 아주 작다. 돌집 마을을 지나 차는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다. 이윽고 우람한 사찰이 나온다.

〈법화원〉(法華院)

장보고가 지었다는 절이다.

장보고(?~846)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젊은 시절, 당나라에 건너가 장수를 하다가 귀국한 후 완도에 청해진을 열어 신라와 당나라, 일본간의 국제무역을 해서 〈해상왕〉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붉은 색 대문을 열로 들어가니 마당이 있고, 그 오른 편엔 종루가 있으며 정면에 법당이 나온다.

우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향이 피워져있고, 법당 안에 장보고의 영정이 있다. 칼을 찬 장수의 모습이다. 그 기상이 늠름하다.

장보고 대사.

동아시아 무역의 패권을 쥐었던 인물, 요즘으로 치면 그는 무역상사의 사장격이었다. 1천년전에 벤처기업을 한 셈이다. 한반도 남부, 중국 산둥, 그리고 오키나와를 잇는 삼각지대가 그의 활동공간이었다. 뚝단배로 선단을 만들어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다는 인물, 법당 뒤로가니 수백개의 돌계단이 마치 하늘로 난 듯 층층시하인데, 그 계단의 끝에 웅장한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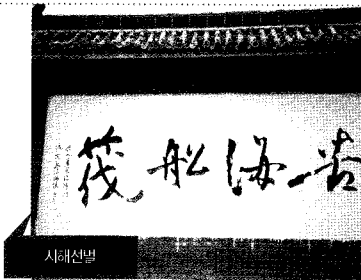
한마디로 대가람의 웅지가 있다. 대웅전앞에 서니, 놀랍게도 석도 항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하, 이것이었구나.

그가 이 산중턱에 절을 세우고,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신라방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기에 서면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언제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역상사의 중국본부이면서 또한 하나의 요새였다.



시해선발



법화원내 문수보살

법화원 올라오는 길에 지어진 돌집들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던 마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파견되어 나와있던 신라인들이 거주하던 신라방이었다.

신라인들이 예부터 돌로 집을 지었듯이 그들은 여기에 돌집을 만들어 거기에 거주했던 것이다. 절마당의 담에 활달한 필치의 글귀가 하나 적혀있다.

〈世海船筏〉(세계의 바다를 배로 정벌하다)

그렇다.

장보고는 세계의 바다를 배로 정벌한 한국사의 유일한 인물이다.

법화원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국사에서 장보고를 잘못 배웠다.

법화원에 와보니 그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이었다.

법화원 건물은 지금도 수천 평에 달한다.

아마 과거에는 이보다 더했을 것이다. 많은 신라인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신라로 가져갈 물건들을 여기에 산더미처럼 부려놓았을 것이다.

경내에는 가람비가 내린다.

자객 염징의 칼에 맞아 삶을 마감한 장보고.

그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사는 〈대항해의 시대〉를 열면서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위대했던 한국인, 장보고의 기상은 1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산동반도에 옹혼하게 살아있었다.

자, 장보고장군을 위해 향초 한 대를 바치고, 50위안의 헌금을 하고, 나그네는 법화원을 떠난다.

멀리 위해서까지 가기 전에 잠시 할 일은, 역시 〈불일〉이다.

화장실을 찾았다.

화장실은 절박에 있다.

이따금 한국관광객이 단체로 오기에 화장실을 새로지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깔끔단정하다. 변기가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중국의 화장실로서는 A급 수준이다. 관리를 열심히 한 흔적도 엿보인다.

이정도되면 일단 합격집이다.

법화원에서 감동을 받고 난 다음, 화장실이 찼찼했다면 법화원에 대한 인상도 구겨졌을텐데 화장실이 깔끔해서 여전히 이미지가 좋다.

자, 나그네는 이제 다시 차를 달려 위해서로 들어간다.

